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체제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¹⁾

박선미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재교육을 강조하는 등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학입학 후에 대학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및 고교-대학 간 학습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첫째, 우수 학생들의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둘째 우수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셋째 수시 합격자 및 수험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교육적 공백 방지, 넷째 고등학교-대학 교육의 연계체제 강화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박선미 외, 2005, 2006, 2007, 2008a).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도입을 위하여 2003~200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05~2006년에는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하여 과학고, 외국어고 및 일반계고의 성적우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다. 교육

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대학과목선 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 UP)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UP)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제도 운영을 총괄 지원·관리할 '대학과목선 이수제 주관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정되었다('07.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7년에 마련된 표준교육과정과 제도의 세부운영 방안에 따라 고려대, 부산대, 상지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등 8개 대학을 '대학과목선 이수제(UP)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2007년 7~8월에 6개 대학(부산대와 상지대 제외)에서 미적분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 실험, 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 실험 등 7개 교과목, 25개 강좌가 개설되어 총 35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한편 2008년 1월의 대학과목선 이수제(UP)의 본 시행을 위하여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 동안 12개 대학에서 9개 교과목, 36개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총 571명의

1) 본 내용은 박선미 외(2008a, 2008b)의 연구에서 발췌하였음.

학생이 참여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UP)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의 개발·보완, 표준화된 평가기준 제시 및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시범운영한 대학과목선 이수제(UP)의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과목선 이수제(UP)에 대한 의견 조사

대학과목선 이수제 시행의 효과 및 운영체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7 대학과목선 이수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고등학생(354명), 대학교수(30명), 대학의 행정가(6명) 및 대학과목선 이수제 관련 전문가(64명), 고등학교 교사(400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134명, 대학교수는 18명, 대학의 행정가는 6명, 전문가는 30명, 교사는 123명(일반계고 77명, 외국어고 7명, 과학고 23명, 자립형 사립고 16명)이었다.

1) 2007 대학과목선 이수제(UP) 시범운영에 대한 의견 조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시범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설문대상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심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교사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인식은 높은 반면, 일반계고와 자사고 교사의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대학

과목선 이수제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는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상위 학생들에게 필요하며, 효율적이라는 의견(81.6%)이 반대 의견(18.4%)보다 많았다. 그러나 교수 및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교사 집단이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고교 유형별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에 비하여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교사가 제도의 효율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 체제 강화,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우수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대학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대학 입학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입시 과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본래의 취지와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은 선생님의 소개 및 권유와 대학의 홍보를 통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학생을 추천할 의사 및 참여 가능한 학생의 비율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할 학생을 상위 몇 %로 제한하기 보다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준별 반 편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강의가 20명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준별 반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편, 교수들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담

당교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대학과목의 사전 체험(31.2%), 관심 분야의 심화학습(28.8%), 대학 진학에의 도움(19.1%)을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과목을 수강한 이유는 좋아하는 과목이거나 대학 진학 후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어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심화 학습할 수 있어서, 대학 강의와 대학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필평가, 학습 시간 부족 등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 후속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80.6%)가 높은 편이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겠다(97.8%)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수강한 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꾸준히 지속(97.1%)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70% 이상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전체의 67.2%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 부족, 선수학습 능력의 부족, 높은 강의 수준, 연습 및 복습 시간 부족, 잦은 결석, 빠른 진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교수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으며,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비하여 어려웠으며, 학생들이 고등학교와는 다른 수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견 및 연습 조교 등 지원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선수학습 능력이 있을 때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강의에 참여하고, 연습 및 복습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에서는 연습 조교 등 행정적인 지원과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대학과목선 이수제(UP) 운영체제에 대한 의견 조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교수, 전문가, 대학관계자들은 대학과목선 이수제 수강학생의 선발기준으로 관련 교과와 내신 성적 및 학교장 추천서 활용에 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과목 이수와 관련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서 및 관련 교과와 내신 성적을 기초로 하되, 면접 등을 활용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은 이공계 관련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거주지에 상관없이 희망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학생들이 거주지에 구분 없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할 때, 학생들의 동기 부여 및 흥미 유도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대학 선택에 대한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거주 지역 내에 수강 대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지의 제한 없이 학생들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서울 및 경기의 특정 대학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지방대학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등학교 수업과 연계를 위하여 근거리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강의는 방학 중에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방학 중에 개설할 때에는 3~4주가 적절하며, 학기 중에 개설할 때는 15주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의는 전문성이 높은 대학교수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수강대상의 범위를 상위 5~10%까지 확대하는 것과 운영기관을 지방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넷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하여는 수강료 및 기숙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이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다면 수강료 및 기숙사 지원을 통하여 수월성 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재가 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며, 대학 학점을 상호 인정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표준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시중에 강의하기에 적합한 대학 교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용 교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결과가 대학학점이 인정되므로 대학과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육의 수월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교재 선정에 대한 대학교수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존중을 위해서 교재 개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평가문항의 공동출제 및 문제은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의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학 상호간의 학점인정 및 대학입시의 반영에 대비, 각 대학의 교육수준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평가문항의 공동출제 및 문제은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강의를 담당할 강사가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학 및 고교의 서열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동출제 및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평가문항의 공동출제 및 문제은행 구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교과목의 이수 여부를 P/F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한편, 대학입학 전형에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활성화, 학생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우수한 인재 발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 및 적성을 고려한다면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 대입과 연계될 때 대입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새로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대입전형에서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약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결과를 입시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활성화된 이후가 좋다는 의견이었다.

3) 대학과목선 이수제(UP) 운영의 효과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의 만족도, 강의평가 결과, 학습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강의 시기 및 시간, 강의 내용, 강의 방법, 강의 교재 및 자료, 평가 방법, 담당 교수, 강의시설 및 설비,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걸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강의내용과 강의방법, 담당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통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과 교수의 전문적인 지식에 학생들이 매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평가 결과, 과제물의 내용과 분량,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저조하였다.

또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후의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조사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향상되었고, 대학에서의 학습계획 및 장래 비전을 세우게 되었고, 진로 및 전공 선택에 확신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었고, 학문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탐구능력이 신장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대학과목선 이수제(UP)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학의 대학과목선 이수제 시범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계획이행 영역

대학별 운영계획의 이행 영역에서는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항목 외에는 모든 대학에서 운영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방학기간 동안에 집중이수제로 운영됨에 따라 강의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강의 내용의 전달 뿐 아니라 토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강의평가가 후 해당 과목에 적합한 교수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강의계획서에는 대체로 출석, 과제(보고서), 지필평가의 3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지필평가와 출석 또는 지필평가 100%로 평가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운영 영역

운영 영역에서는 학생모집의 어려움, 학생들의 기초학

력 편차에 따른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필요성,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조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첫째, 대학에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학생의 참여도가 낮아 일부 강의가 개설되지 않거나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을 할 수 없는 대학이 있었다. 한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 결과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도입 취지 및 장점을 널리 홍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과목선 이수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기관, 개설과목, 강의계획서,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학점인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한번의 연결(single point of contact)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의 편차가 심하여 과목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의를 수강하기에 적합한 학생들의 모집을 위하여 지원 서류 및 지원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적분학의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학 관련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류 전형 이외에 면접을 실시하

표 1. 대학별 계획 이행도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수강대상 선정방법	○	○	○	○	○	○
수강 정원	○	○	○	○	○	○
학생 구성	○	○	○	○	○	○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	○	○	○	○	○
수업 내용	○	○	○	○	○	○
교육 방법	△	○	△	○	○	○
평가 방법	△	△	△	△	△	△
학점 인정 방법	○	○	○	○	○	○
담당교원 및 소속	○	○	○	○	○	○
소외계층 및 복지 학생 지원	○	○	○	○	○	○
특기사항	○	○	○	○	○	○

여 학생들이 수강하는 데 적합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3주의 짧은 시기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많은 학습 부담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교육기간과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기간이 중복되어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수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습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며, 고등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표준교육과정 활용의 필요성, 표준교육과정의 적절성, 교과목 운영, 평가의 객관성·형평성·공정성·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대학 간의 학점 교류 및 운영의 통용성 확대의 필요성, 이수결과의 통지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첫째, 2007년 시범 운영에 참여한 대학의 상호 학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균등한 대학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이 낮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교수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들을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워크숍 및 분과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접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표준교육과정의 활용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교육과정에 적합한 대학교재가 없는 경우에 별도의 교재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교재 개발에 대하여 교수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합의를 통해 표준교육과정의 표준을 선정하도록 한다. 즉, 평가를 통하여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난이도 및 학습 동기 유발 가능성, 강의 내용의 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강의분량이 다소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문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 및 학생의 강의평가를 통하여 특정 학습주제에 대한 난이도, 분량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의 주기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강의에 적합한 내용을 정선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I, II와 대학의 과목 I, II의 내용 일치도 확보가 중요하나, 대학에 따라 일부 내용은 교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과목 I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과목 II를 수강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과목 I와 과목 II의 위계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면, 과목 I를 이수하지 않고도 과목 II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계성이 있다면 면접을 통해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과목 I의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경우 과목 II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과목의 위계성에 대해서는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진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2007년 겨울에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12개 대학에서 9개 교과목에 대해 36개 강좌가 운영되었는데, 과목 II에 해당하는 것은 2개 강좌만이 개설되었다. 실제로 과목 I와 II를 모두 수강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과목 I와 II를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과목의 전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교수는 과목 I의 강의를 진행 하면서 과목 II의 내용을 함께 다루었다고 하였다. 현재

와 같이 과목을 I와 II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대학수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통합된 하나의 교과목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교육 내용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며, 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이나 해당 기초과목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과목 I와 과목 II를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할 것인가 또는 과목 I와 과목 II를 유지하면서 통합교과목을 새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대학과목선 이수제 표준교육과정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대학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문항 형식, 평가문항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상호간에 학점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 대학 간 평가문항 공동개발 또는 문제은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관식 형태의 문제 은행을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평가문항을 공동 개발해야 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공동 개발한 평가 문항의 적용을 필수화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대학의 실제 평가문항의 예를 대학에 제시해 주어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과별 평가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평가의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별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대학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 간 학점 교류 및 운영의 통용성 확대를 위해 대학과목선 이수제 참여대학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평가 방법, 운영, 교육내용 등의 균일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2007년 여름동안의 시범운영에서는 학생들에게 강좌이수 후 이수결과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 확인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알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려 주는 것은 학생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므로, 대학과목선 이수제 과목의 이수결과를 학생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결과는 대학마다 원 점수에 따른 학점등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원점수와 등급을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행·재정 영역

행·재정 영역에서는 대학의 수강료 면제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이수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대학 간의 불필요한 과다경쟁 유발 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인식 확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 확보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학교별 관심도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상이하였다. 한편,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한 대학의 경우, 등록한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이는 대학 간의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재학생의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받아 학생들의 참여도와 책임감을 강화하여 수강한 과목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방안으로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개방하고, 실비를 받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거나 우수 학생 유치 및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자체 예산이 풍부하게 지원되었으나,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대한 대학의 인식을 확대하

여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교육기관 등록

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해서는 참여대학 간에 협약을 맺는 방식을 개별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제언

대학과목선이수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자기 계발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박선미, 2008; 박선미 외, 2008a, 2008b). 이러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과목선이수제 담당교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mailing 서비스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와 관련된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 구성한다.

둘째, 대학과목선이수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위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장 및 교사가 제도의 취지와 교육수준을 인식하고 우수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대학과목선이수제를 특별활동 또는 방

과 후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에 대한 대학의 인식을 확대한다. 대학은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발굴·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시설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특정학문 분야에 보다 동기화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며, 대학 입학 자원에게 대학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 학생들이 반복적인 지식의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문적인 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능력을 발전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안내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수 학생의 인력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박선미(2008), 박선미 외(2008a, 2008b)의 연구에서 제안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대학과목선이수제는 고교-대학 간 연계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대학과목선이수제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교육목적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이수결과가 대학입학과 연

계된다면 과열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의 가중 및 사교육의 활성화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도입의 본질적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등 학생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하는 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학 제도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고득점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바람직한 학생선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은 고등학교의 보편 교육에 수월성 교육을 조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과목선이수제는 고등학교가 제도 운영의 일차적인 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과목선이수제를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담당교원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체제의 구축 및 자격인증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과목선이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수한 교육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과 균일화가 이루어져 이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육기관이 고등학교로 확대될 경우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체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과목선이수제가 21세기형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 대학과목선이수제 평가의 공정성과 균일성 확보를 통해 외국 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외국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이것을 대학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국제적인 통용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참 · 고 · 문 · 헌

- 박선미, 김용남, 심재영, 배새벽, 안정훈 (2005), 선수 학점 인증 시험에 관한 연구,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한국과학재단
- 박선미, 김재춘, 김훈, 김경대, 이태상, 김용남, 신광수(2006), AP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선미, 이태상, 김경대, 김훈, 박승렬, 신광수(2007), 우수학생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체제 및 교육기관 평가인증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선미 (2008), 대학과목선이수제 소개 및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대학교육 Vol.151(1/2), 52-56
- 박선미, 김훈, 김경대, 이태상, 박일수 (2008a),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선미, 박일수, 김훈, 김경대, 이태상 (2008b), 한국의 대학과목선 이수제 소개 및 운영 현황 분석, 2008 KSCS KSSEE International Conference, 381-395

필 · 자 · 소 · 개

박선미

중앙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천문연구원 과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자 연과학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 교육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우수학생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체제 및 교육기관 평가인증 방안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AP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선수 학점 인증 시험에 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